

새로운 방재기술보급에 주력해야

현대 산업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각종 새로운 위험이 급속히 증가하고 위험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게 Soft화, Black box화 되어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등 기업의 화재 위험도는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기업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구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과학적인 위험관리 기술이 부족하고, 인력과 장비면에서 대단히 취약하였다.

그러나, 지난 '86년 방재시험소가 설립되면서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기술자료 및 정보제공과 함께 2년간에 화재예방 전문교육 등의 혜택을 받아 방화관리 능력이 상당히 배양되었음을 감사드린다. 이제 방재시험소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종합방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안전, 방화관리 업무는 종업원의 의식구조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달, 국민의 생활의식 향상에 따라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선진 일류 기업들은 이들 부문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과학적인 예방관리 기법을 써서 폭발 등의 사고를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장자동화 등에 따라 무인장소가 많이 발생하여 소방설비도 자동화되어 적외선이나 자외

신문진 〈삼성전자(주) 환경, 안전 담당〉

선을 이용하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지기가 있는가 하면, 미세한 분진을 포착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써 기존 감지기의 몇 백배의 성능을 갖는 고감도 감지기 등 새로운 방화설비가 계속 개발되고 있어 이러한 새 기술에 대한 정보 입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기업이 필요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사업상의 위험이 한층 복잡 고도화 되기 때문에 내부의 인력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방재시험소의 축적된 기술과 최신 시험설비를 이용한 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게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이는 사업장의 생산설비가 과학화, 자동화 될 수록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새로운 방화설비도 도입해야 하고 필요한 인력도 계속적으로 양성하여 보다 나은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통한 예방관리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방재시험소의 방화안전제품의 시험과 우수제품의 추천, 인정업무 뿐 아니라 해양산업, 선박용품의 안전성, 전기, 소방, 경보, 냉난방설비 등 기타 설비에 대한 연구개발과 안전도 시험면에서도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UL마크와 같은 세계적인 방재시험소가 되기를 바란다.

거듭 뜻깊은 개소 5주년을 축하드리며, 재난없는 복지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방재시험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